

최근정가에서 불투명한
경력으로 의구심을 불러
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
金泳三 차기 대통령의
책수석 비서관 내정자 田
炳旼씨(46) 그의 장인이
민족지도자였던 古下 宋
鎮禹 선생의 암살자로 밝
혀져 또 다시 관심을 끌고
있다.

田씨의 장인인 韓賢宇
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
위해 자주 이를 바꿔 弘健桂
이나 田씨의 부인 韓英
鳩씨(46·외교안보연구원
교수)는 20일 본보 기자
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
시인했다.

부인 韓씨는『아버지
는 현재 일본 東京 目黑
區에서 한일고대사에 대
한 저술을 하며 지내고
있다면서』『아버지는 6
25일 후 일본으로 건너가
일본여자와 결혼해 3명
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
했다. 그동안 韓賢宇씨의
행방은 불투명했었다.
韓씨는 집안에서는 우
울한 기억을 되살리지

않기 위해 아버지에 대해
언급하는 것을 금기로
삼고 있다』고 덧붙였다.

韓賢宇씨의 부인 李모

씨(69)는 韩씨가 경찰에
붙잡혔던 곳인 서울中구
新堂동 304의 200 한

옥에서 지난 83년까지 거
주하다 사위인 田씨의
서울城 東구 玉水洞 자택으
로 데려온 뒤 부와 함께 살
고 있다.

韓賢宇씨는 지난 45년 12
월 30일 새벽 6시 경 서울
鍾路구 范西洞 74 古下의
주택에 劉根培 金義賢 등
공범 4명과 함께 침입
다가 사건 발생 98일 만
인 46년 4월 8일 자신의
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.
田씨는 이에 대해 『공
인이 되려니 굳이 밝
히고 싫지 않은 생활의
부분까지 드러나게 죄
쓸하다』면서 『결혼하 뒤
東京에서 장인을 뵈 적
이 있다』고 밝혔다.